

2024 수능 퀄러 문항 배제! 준킬러 문항이 답이다!

2024 수능시험 대비

리얼 오리지널

Semi killer questions

준 퀄러 문항
수능기출 10개년 총정리

국어 영역 | 비문학 독서

2014~2023 최근 10개년 6·9·수능 기출문제 중 비문학 준킬러(중난도) 문항 176제
국어 [인문·사회·과학·기술·복합] 제재별 수록으로 [하루 평균 25문항] 7일 완성
평가원 발표 퀄러 문항을 제외한 준킬러(중난도) 정답률 [20~60%] 문항만 발췌
꼭 풀어야 할 비문학 주요 제재 [지문 54개]를 염선 후 수록

Semi killer questions **준 길러 문항**
수능기출 10개년 총정리

국어 영역 | 비문학 독서

| | | |
|---------------|----------------|------|
| Day 01 | I 인문 | 002쪽 |
| Day 02 | II 사회 | 012쪽 |
| Day 03 | II 사회 | 024쪽 |
| Day 04 | II 사회 · III 과학 | 036쪽 |
| Day 05 | III 과학 · IV 기술 | 046쪽 |
| Day 06 | IV 기술 · V 복합 | 058쪽 |
| Day 07 | V 복합 | 070쪽 |

● 정답과 해설 책속의 책

CONTENTS

Semi killer questions

IPSIFLY REAL ORIGINAL

수능기출 10개년 / 준킬러 문항 / 총정리

비문학 독서

| 학습 일정 | I. 인문 [제재] | 출처 | 문제편 | 해설편 |
|--------|-----------------------------|------------------|-------|-------|
| Day 01 | 반자유의지 논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인문]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02 | p.002 |
| |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인문]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03 | p.002 |
| | 논리실증주의와 종체주의 [인문]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04 | p.002 |
| | 도덕적 윤의 존재 [인문]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05 | p.003 |
| | 과학철학의 설명 이론 [인문]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07 | p.004 |
| | 정합설 [인문] |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08 | p.004 |
| | 대상의 본질 [인문] |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09 | p.005 |
| |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 [인문]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10 | p.005 |

| 학습 일정 | III. 과학 IV. 기술 [제재] | 출처 | 문제편 | 해설편 |
|--------|---|------------------|-------|-------|
| Day 05 | 열과 일에 관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 [과학] |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46 | p.020 |
| |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과학]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47 | p.020 |
| | 빗방울의 종단 속도 [과학]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48 | p.021 |
| |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 [과학]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49 | p.021 |
| | 각운동량 [과학] |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50 | p.022 |
| | 지구 상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전향력 [과학]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51 | p.022 |
| | 검색 엔진의 웹 페이지 순서 결정 [기술] |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52 | p.023 |
| | 메타버스(metaverse)의 몰입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기술 [기술]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53 | p.023 |
| | 영상 안정화 기술 [기술]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54 | p.023 |
| |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 [기술] |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55 | p.024 |

| 학습 일정 | II. 사회 [제재] | 출처 | 문제편 | 해설편 |
|--------|---------------------------|------------------|-------|-------|
| Day 02 | 이중차분법 [사회]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12 | p.006 |
| | 유류분권 [사회] |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13 | p.006 |
| |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 [사회]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15 | p.007 |
| | 베카리아의 형벌론 [사회]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16 | p.007 |
| | 지식 재산 보호와 디지털세 [사회]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17 | p.008 |
| |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 [사회]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18 | p.008 |
| | 환율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단 [사회]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20 | p.009 |
| |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사회]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22 | p.010 |

| 학습 일정 | IV. 기술 V. 복합 [제재] | 출처 | 문제편 | 해설편 |
|--------|-------------------------------------|------------------|-------|-------|
| Day 06 | 3D 합성 영상의 생성,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 [기술]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58 | p.025 |
| | 검사용 키트 [기술] |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59 | p.026 |
| |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기술] |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61 | p.027 |
| |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기술] |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62 | p.028 |
| |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전송 과정 [기술]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64 | p.029 |
| | 개체성의 조건과 공생발생설에 따른 진핵생물의 발생 [제재 복합] |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65 | p.029 |
| | 서양과 동양의 천문 이론 [제재 복합]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67 | p.030 |

| 학습 일정 | II. 사회 [제재] | 출처 | 문제편 | 해설편 |
|--------|-------------------------|------------------|-------|-------|
| Day 03 | 예약의 법적 성질 [사회]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24 | p.011 |
| |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사회] |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25 | p.012 |
| | 소유권의 공시 방법 [사회] |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27 | p.013 |
| | 부관의 법률적 효력 [사회]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28 | p.013 |
| | 보험의 개념과 보험료의 산정 방법 [사회]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30 | p.014 |
| | 통화 정책 [사회] |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32 | p.015 |
| |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 [사회]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33 | p.015 |

| 학습 일정 | V. 복합 [제재] | 출처 | 문제편 | 해설편 |
|--------|---|------------------|-------|-------|
| Day 07 |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역학과 비고전 논리 [제재 복합]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70 | p.031 |
| | 음악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음악의 아름다움 [제재 복합]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72 | p.032 |
| | (가) 「신어」에 담긴 육가의 사상 (나)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주제 통합]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73 | p.033 |
| | (가) 새언의 과정 이론 (나) 재이론 [주제 통합]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75 | p.034 |
| | (가)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 (나)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 [주제 통합]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77 | p.035 |
| | BIS 비율 규제로 살펴보는 국제적 기준의 규범성 [주제 통합]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79 | p.035 |

| 학습 일정 | II. 사회 III. 과학 [제재] | 출처 | 문제편 | 해설편 |
|--------|-------------------------------|------------------|-------|-------|
| Day 04 | 집합 의례 [사회]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p.036 | p.016 |
| | 사회 이론과 시대 상황 [사회]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37 | p.016 |
| | 비타민 K의 기능 [과학]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38 | p.017 |
| |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과 그 의미 [과학]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39 | p.017 |
| | 장기 이식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과학]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40 | p.017 |
| |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방법 [과학]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p.041 | p.018 |
| | 전통적 PCR와 실시간 PCR의 원리와 특징 [과학]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42 | p.018 |
| | 인공 신경망 기술 [과학]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p.043 | p.019 |

“준 킬러 문항을 잡아야 수능을 잡는다!”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은 평가원의 발표와 같이 전 영역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 됩니다. 특히 국어 영역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경우 변별력 확보를 위해 「준 킬러(“중난도”) 문항」이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은 배제되지만 「수능 출제 원칙」은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국어 영역은 변별력을 갖춘 「준 킬러 문항」을 많이 풀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10개년 준 킬러 문항 총정리」는 최근 10개년 6·9·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중 정답을 20%~60%의 등급을 움직이는 「176개 문항」만을 발췌했습니다. 일부 문항은 정답률과 관계없이 다시 풀어봐야 할 주요 지문과 변별력 있는 문항을 엄선 후 수록했습니다.

학습일별 & 문항별 학습 체크

| 학습일 | 학습 날짜 | 학습 시간 | 문항 번호 | 틀린 문제 |
|--------|-------|-----------|--|-------|
| Day 01 | 월 일 | 시 분 ~ 시 분 | 01 ~ 02 03 ~ 05 06 ~ 09 10 ~ 12 13 ~ 14 15 ~ 17 18 ~ 20 21 ~ 23 | |
| Day 02 | 월 일 | 시 분 ~ 시 분 | 01 ~ 04 05 ~ 08 09 ~ 10 11 ~ 12 13 ~ 15 16 ~ 20 21 ~ 24 25 ~ 27 | |
| Day 03 | 월 일 | 시 분 ~ 시 분 | 01 ~ 04 05 ~ 08 09 ~ 12 13 ~ 16 17 ~ 21 22 ~ 23 24 ~ 26 | |
| Day 04 | 월 일 | 시 분 ~ 시 분 | 01 ~ 02 03 ~ 05 06 ~ 09 10 ~ 11 12 ~ 14 15 ~ 16 17 ~ 20 21 ~ 23 | |
| Day 05 | 월 일 | 시 분 ~ 시 분 | 01 ~ 03 04 ~ 05 06 ~ 07 08 ~ 09 10 ~ 11 12 ~ 13 14 ~ 17 18 ~ 19 20 ~ 23 24 ~ 26 | |
| Day 06 | 월 일 | 시 분 ~ 시 분 | 01 ~ 03 04 ~ 07 08 ~ 10 11 ~ 13 14 ~ 15 16 ~ 19 20 ~ 24 | |
| Day 07 | 월 일 | 시 분 ~ 시 분 | 01 ~ 05 06 ~ 09 10 ~ 14 15 ~ 19 20 ~ 24 25 ~ 27 | |

Semi Killer Questions
Day 01
 I. 인문

준 케러 문항
 수능기출 10개년 총정리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반자유의지 논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002쪽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003쪽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논리실증주의와 충체주의 004쪽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덕적 운의 존재 005쪽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과학철학의 설명 이론 007쪽
-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합설 008쪽
-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대상의 본질 009쪽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 010쪽

Day 01

● 문항수 23개 | 학습 시간 50분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9월 모평 | 인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⑦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I. 인문

●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⑦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1. ⑦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③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 ④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윗글의 ⑦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템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원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한다.

○ 논의 : [A]

- 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6월 모평 | 인문]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⑧ 실험동물이 ⑨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⑩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은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고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고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라)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언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마)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가) ~ (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다) : 동물 실험에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 ③ 인간이 고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5.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⑧~⑩에 해당하는 것을 ⑪~⑬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짹지는 것은? [3점]

<보기>

내가 알고 있는 ⑪ 어떤 개는 ⑫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벌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⑬ 비슷하게 생긴 ⑭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벌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 | | |
|---|---|---|
| ⑪ | ⑫ | ⑬ |
| ⑫ | ⑬ | ⑭ |
| ⑬ | ⑭ | ⑪ |
| ⑭ | ⑪ | ⑫ |
| ⑮ | ⑯ | ⑰ |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수능 | 인문]

⑦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⑧ 쿠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⑨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⑩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준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준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쿠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⑪ 기준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쿠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 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쿠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쿠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들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쿠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쿠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⑦과 ⑧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쿠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쿠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를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쿠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⑪~⑫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⑪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⑫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⑫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⑬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⑪는 ⑫와 ⑬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⑪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⑫는 ⑬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⑪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⑬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⑪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9.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학년도 수능 | 인문]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 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①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②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기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거나 때문이다.

10. ①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①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①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있다고 생각한다.
- ④ ①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①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11. ①의 관점에 따를 때,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다.
- ㄴ.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되었다.
- ㄷ.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 모르고 찢으며 놀았다.
- ㄹ. 풍족한 나라의 한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돋는 활동을 했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2.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 선수 A와 B가 있다. A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여 골을 넣었는데, B는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 ②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 ③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빌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⑤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Semi killer questions 준킬러 문항

수능기출 10개년 총정리

국어 영역 | 비문학 독서

해설편

| | | |
|---------------|----------------|------|
| Day 01 | I 인문 | 002쪽 |
| Day 02 | II 사회 | 006쪽 |
| Day 03 | II 사회 | 011쪽 |
| Day 04 | II 사회 · III 과학 | 016쪽 |
| Day 05 | III 과학 · IV 기술 | 020쪽 |
| Day 06 | IV 기술 · V 복합 | 025쪽 |
| Day 07 | V 복합 | 031쪽 |



* 수록된 정답률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난도를 파악하는데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Day 01

I. 인문

| | | | | |
|------|------|------|------|------|
| 01 ⑤ | 02 ④ | 03 ⑤ | 04 ⑤ | 05 ② |
| 06 ② | 07 ④ | 08 ⑤ | 09 ⑤ | 10 ⑤ |
| 11 ① | 12 ① | 13 ① | 14 ④ | 15 ④ |
| 16 ① | 17 ⑤ | 18 ④ | 19 ① | 20 ④ |
| 21 ⑤ | 22 ③ | 23 ② | | |

[01~02]

• 인문 •

• '반자유의지 논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01 이유의 추리

정답률 51% | 정답 ⑤

• 왜 정답일까?

⑤ 5문단을 통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작위로 일어난 어떤 선택은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자유의지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을 이유로 들어 ⑤과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 문제 해결 꿀~팁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글에 제시된 반자유의지 논증과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이유를 정확히 추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문제 해결 방법은?

이유 추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시된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내용의 전후를 바탕으로 추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의 경우 ⑤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 ⑤은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의 주제에 해당하므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자유의지의 산물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글 통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작위로 일어난 어떤 선택이 자유의지의 두 가지 조건→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함→모두 충족하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⑤가 이유로 적절한 것이다.

▶ 오답인 ③, ④를 많이 선택한 이유는?

이 문제의 경우 ③과 ④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⑤의 내용이 '무작위 논증을 가장할 때'와 관련되었음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인다. 만일 선택지에 제시된 ③, ④의 내용이 '논증의 무작위 가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선결정과 관련된 내용인 것'을 파악한다면 적절하지 않았음을 바로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유를 추리할 때는 정확히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 내용 중심으로 이유를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02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률 57% | 정답 ④

• 왜 정답일까?

④ 〈보기〉를 통해 H의 실험이 인간의 선택이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에서의 다른 신경 사건과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을 통해 반자유의지 논증

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볼 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부인될 수 있으며,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왜 오답일까?

① 3문단을 통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질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을 통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결정 가정과 관련된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고 해서 ⑤이 무작위 가정을 침이로 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결정이 선결정되어 있다는 가정이 맞지 않게 되므로 선결정 가정은 침이 아닐 수 있다.

④ 3문단의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왜 정답일까?

② ⑤는 실험동물, ⑥는 유사성, ⑦는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이다.

이를 〈보기〉 ②, ④, ⑦에 적용하면, ⑤는 반응 결과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⑧에 해당한다. 이때, ⑧가 나타내는 ⑨반응 결과는 ⑩에 해당한다. 또한 ⑥는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⑪에 대응된다.

• 왜 오답일까?

⑨는 인간과 유사성이 있는 실험 대상에서 얻은 반응 결과를 적용하는 대상이므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03~05] • 인문 •

•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03 핵심 정보 파악

정답률 66% | 정답 ⑤

• 왜 정답일까?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기〉에 제시된 것에 적용하여 푸는 문제로,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이다.

▶ 문제 해결 방법은?

⑤ (마)에서는 (라)의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부연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는 점, 두 번째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때, 첫 번째 비판에서 유비 논증의 개연성을 언급했으므로 이 비판점 또한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고, 두 번째 비판인 윤리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 오답인 ⑥, ⑦를 많이 선택한 이유는?

이 문제의 경우 ③과 ④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⑤의 내용이 '무작위 논증을 가장할 때'와 관련되었음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인다. 만일 선택지에 제시된 ③, ④의 내용이 '논증의 무작위 가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선결정과 관련된 내용인 것'을 파악한다면 적절하지 않았음을 바로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유를 추리할 때는 정확히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 내용 중심으로 이유를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왜 오답일까?

① (가)에서는 유비 논증의 개념과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한다는 유비 논증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인간과 실험동물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유비 논증을 활용해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한다는 조건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기능적 유사성에 의한 것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이 모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4 글의 내용 추론

정답률 58% | 정답 ⑤

• 왜 정답일까?

⑤ (마)에서는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들어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때,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안 되

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다)에서 유비 논증의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유사성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인간은 동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유비 논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자신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다)에서 인간과 고리가 있는 실험동물을 고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으로 무시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논증의 개연성을 낮추지 않는다.

④ (나)의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간과 실험 동물 간의 유사성을 통해 그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고, 이는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인간에게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문단을 통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3문단을 통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정답일까?

① 4문단을 보면 ⑦은 자식의 변화를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⑧의 질문에 '아니요'로 답할 수 있다. 하지만 1문단에서 ⑨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니요'로 답할 수 없다.

② 4문단을 보면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이 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⑩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⑪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는지에 대해서는 ⑫의 질문에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⑬은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무관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아니요'로 답할 수 없다.

④ 2문단에서 ⑭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⑮의 질문에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⑯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⑰의 질문에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지만, ⑱은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하였으므로 '아니요'로 답할 수 없다.

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가설은 경험을 통해 시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총체주의 입장에서는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②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③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

② 4문단을 보면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이 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④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⑤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는지에 대해서는 ⑥의 질문에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⑦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면 예측을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⑧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⑨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는지에 대해서는 ⑩의 질문에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다.

④ 2문단에서 ⑪은 주변부 지식은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하였으므로 ⑫는 ⑬과 ⑭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⑤ 3문단에서 ⑯은 과학적 지식은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하였고, 이 두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았다. 또한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⑰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⑱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것이다.

⑥ 4문단에서 ⑲은 과학적 지식을 경험과 충돌할 수 있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하였고, 이 두 지식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⑳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㉑의 주변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5문단에서 ㉒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㉓의 질문에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지만, ㉔은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하였으므로 '아니요'로 답할 수 없다.

⑧ 6문단에서 ㉕은 과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하였고, 이 두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았다. 또한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㉖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㉗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것이다.

⑨ 7문단에서 ㉘은 과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㉙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것이다.

⑩ 8문단에서 ㉚은 과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㉛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것이다.

⑪ 9문단에서 ㉕은 과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㉖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것이다.

⑫ 10문단에서 ㉗은 과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㉘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것이다.

⑬ 11문단에서 ㉙은 과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㉚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것이다.

⑭ 12문단에서 ㉛은 과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㉜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것이다.

⑮

발을 밟은 것이므로,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강제'에 해당하여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④ 글을 모르는 아이가 중요한 서류를 끊으며 노는 행위는 '무지'에 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문제 해결 꿀~팁 ★

▶ 많이 틀린 이유는?

글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글의 내용과 <보기>의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반대의 선택지를 골라 오답률이 높았다.

▶ 문제 해결 방법은?

우선 ④의 관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보기>에 적용하여 풀면 효과적으로 답에 접근할 수 있다. 즉 ④의 서술대로 강제나 무지가 개인되지 않은 선택지만 고르면 된다.

▶ 오답인 ②를 많이 선택한 이유는?

④의 관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강제나 무지에 의해 벌어진 사건'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ㄴ과 ㄷ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12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률 60% | 정답 ①

▶ 왜 정답일까?

① <보기>에는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는 축구 선수 A와 B가 축구 시합에서, A는 골을 넣고 B는 골을 넣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이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글 6문단에서 글쓴이는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② 이 글 4문단을 통해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지만, '결과에 대한 추족'에 대한 평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

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인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남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를 통해 볼 때,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역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편향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글쓴이가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둘 다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기>에서 A 역시 무모함과 독선을 지니고 있으므로, B의 상황에서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 4문단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통해, 골을 넣지 못한 B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A보다 B가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13~14] 과학철학의 설명 이론

• 인문 •

13 핵심 정보의 이해 및 추론

정답률 55% | 정답 ①

▶ 왜 정답일까?

① 2문단에서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설명'에 관한 헬펠의 세 번째 조건에 따르면 피설명형은 설명형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헬펠의 세 번째 조건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설명'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라고 해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왜 오답일까?

② 3문단에서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헬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헬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형은 설명형으로부터

14 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률 58% | 정답 ④

▶ 왜 정답일까?

④ 2문단에서 헬펠은 설명이 논증의 형식을 띠어야 하므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형이 전제에,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형이 결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일까?'라는 물음을 볼 때, <보기>에 제시된 문제들 중 피설명형에 놓여야 할 것은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이다.'라는 'ㄷ'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 헬펠은 설명형에는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문제들 중 보편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는 'ㄷ'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문단에서 헬펠은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선형 조건이 설명형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문제들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이다.'라는 'ㄴ'과 'ㄷ'은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라는 'ㄱ'이라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할 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다. 또 참인 명제와 정합적인 관계에 있는 새로운 명제도 참임을 알 수 있다.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할 때 참이 아닌 명제는 모순이 있는 명제를 의미한다. 그런데 '함축은 'A'가 참일 때 B도 반드시 참'으로 설명되므로, 모순이 있는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해도 거짓이 된다.

⑤ 5문단에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할 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이라고 했다. 그리고 2문단에서 '반본질주의' 입장에서는 '본질'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에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라고 밀하고 있다.

즉, '반본질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되면 그 의미가 바로 '본질'이 되고, 이 '본질'은 그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왜 오답일까?

① 2문단에서 '반본질주의'는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②, ③ 2문단에서 '본질주의'는 어떤 대상의 본질이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으로서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⑤ 2문단을 보면,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이 공유하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본질'이 객관적으로 대상에 실재한다는 것은 '본질주의'의 주장이다.

★★ 문제 해결 꿀~팁 ★★

▶ 많이 틀린 이유는?

<보기>에 제시된 사례와 이 글에 제시된 '본질'과 '반본질주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문제 해결 방법은?

자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하는 문제(또는 그 반대)에서는 어떤 해석이 지문과 <보기>의 내용이나 흐름에 각각 부합한다면 그 해석을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에 대한 각 선택지의 해석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해석은 적절한 것이다.

▶ 오답인 ②와 ⑤를 많이 선택한 이유는?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해 오답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와 ⑤ 모두 본문의 2문단에서 해석의 근거를 바탕으로 <보기>에 적용하였다만, ②와 ⑤가 적절한 내용임을 파악했을 것이다.

12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률 60% | 정답 ①

▶ 왜 정답일까?

① <보기>에는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는 축구 선수 A와 B가 축구 시합에서, A는 골을 넣고 B는 골을 넣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이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글 6문단에서 글쓴이는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② 이 글 4문단을 통해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지만, '결과에 대한 추족'에 대한 평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

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인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남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를 통해 볼 때,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역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편향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글쓴이가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둘 다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기>에서 A 역시 무모함과 독선을 지니고 있으므로, B의 상황에서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 4문단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통해, 골을 넣지 못한 B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A보다 B가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13 핵심 정보의 이해 및 추론

• 인문 •

▶ 왜 정답일까?

① 2문단에서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헬펠의 세 번째 조건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설명'

14 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률 58% | 정답 ④

▶ 왜 정답일까?

④ 2문단에서 헬펠은 설명이 논증의 형식을 띠어야 하므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형이 전제에,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형이 결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일까?'라는 물음을 볼 때, <보기>에 제시된 문제들 중 피설명형에 놓여야 할 것은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이다.'라는 'ㄷ'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 헬펠은 설명형에는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문제들 중 보편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는 'ㄴ'과 'ㄷ'은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라는 'ㄱ'이라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라고 했다. 그리고 2문단에서 '반본질주의' 입장에서는 '본질'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에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라고 밀하고 있다.

즉, '반본질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되면 그 의미가 바로 '본질'이 되고, 이 '본질'은 그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왜 오답일까?

① 2문단에서 '반본질주의'는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②, ③ 2문단에서 '본질주의'는 어떤 대상의 본질이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으로서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⑤ 2문단을 보면,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이 공유하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본질'이 객관적으로 대상에 실재한다는 것은 '본질주의'의 주장이다.

19 내용 간의 의미 관계 추론

정답률 70% | 정답 ①

▶ 왜 정답일까?

① ②는 '모순'을 설명한 것이다. ①의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가 참이면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당연히 거짓이 되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가 거짓이면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당연히 참이 된다. 따라서 이 둘은 모순 관계에 해당한다.

② ③은 '모순'을 설명한 것이다. ②의 '민수에게 이익이 있다'는 <보기>에 제시된 '설명적'의 조건에 포함되는 명제는 두 명제 모두 거짓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경우, 즉 두 경우 모두 거짓일 수는 있으므로 모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④ 화요일이면서 동시에 수요일일 수는 없으므로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지만, 오늘은 화요일도 수요일도 아닐 수 있으므로 둘 다 참일 수 있다. 따라서 모순 관계가 아니다.

Semi killer questions

수능기출 10개년 준 킬러 문항 총정리



리얼 오리지널 | 수능기출 10개년 준 킬러 문항 총정리 [국어 영역 | 비문학 독서]

발행처 수능 모의고사 전문 출판 입시플라이 | 발행일 2023년 7월 21일 | 등록번호 제 2017-0022호

홈페이지 www.ipstify.com 대표전화 1566-9939 구입문의 02-433-9975 내용문의 02-433-9979 팩스 02-433-9905

발행인 조용규 편집책임 양창열 김유 이해민 임명선 김선영 물류관리 김소희 이해리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15 정민빌딩 3층

정가 12,000원

※ 페이지가 누락되었거나 파손된 교재는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발간 이후 발견되는 오류는 입시플라이 홈페이지 정오픈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